비약과 번영의 지름길

강력한 국가건설은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에 달려있다. 공화국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선차적인 목표로 내세운것도, 시종일관하게 과학중시, 교육중시로선을 견지하고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 과학과 교육은 급속히 발전하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과학으로 비약하는 시대

과학기술력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되고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오늘날 과학기술발전속도이자 나라의 발전속도라고 할수 있다.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과학으로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고 의도이다.

과학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종합적과학기술력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이르도록 할것을 구상하신 그이께서는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애국충정과 인민의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비약하여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이 경제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인재를 중시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과업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과학기술발전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고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연구에 머물러있던 공화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령역이 이제는 세계적인 첨단과학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는 넓은 령역으로 확대되였고 우주강국, 프로그람개발강국으로 되였다.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인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도 자체로 연구개발완성하였고 첨단기술인 량자암호통신기술도 자체로 개발하였다. 기계제작공업분야에서는 새형의 화물자동차, 뜨락또르, 만능화된 고기배,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등이 생산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단천제련소, 대동강타일공장, 삼천메기공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대동강주사기공장을 비롯한 많은 생산기지들의 중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이 현대화, 정보화되고 콤퓨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구축되게 되였다. 콕스 대신 무연탄으로 선철을 생산하는 산소열법에 의한 생산공정이 완성되고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질소비료생산정상화가 실현되였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이 생산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적적성과들은 과학자들의 지혜와 열정, 애국충정의 고귀한 열매이다.

과학보다 먼저 인간을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을 위하여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에 대한 사회적우대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과학자휴양소 등 과학자들에게 돌려진 혜택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을 얼마나 중시하시고 과학자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혜택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군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에는 과학으로 발전하고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

인재는 나라와 민족의 첫째가는 재보이다. 예로부터 한해 일을 궁냥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겨주는 격언이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한 국력을 가지고 흥할수 있지만 인재가 없으면 광대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도 빛을 낼수 없으며 사회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교육이 발전하여야 나라가 발전한다.

교육사업을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여기시고 교육발전에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교육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교육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건설하시려는것이 그이의 구상이고 의도이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세계교육발전추세와 나라의 교육실태를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나라의 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여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추동하게 되였다. 고등교육체계를 갱신하고 정비하며 대학들을 종합대학화, 일원화하여 고등교육의 전반적수준을 높이는 문제, 대학들을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문제 등 교육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재육성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몇해전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교육현대화의 신호탄이 오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을 건축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개선강화하여 건축교육에서 중심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사를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국가교육발전전략을 보아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 교육사업이 세계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는 교수과정과 교수수단, 수법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여러가지 교수형태들을 잘 결합하여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적문제들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참으로 심원하고 명철하다.

모든 교정들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교정들에서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이 현대화되고 교수와 실험실습과정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변모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세대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양성하자면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공부만 하게 할것이 아니라 체육도 하고 유희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피심이 깃든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과외교육교양기지들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며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역군으로 성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1월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여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현명하게 밝혀주신것은 그이께서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시고 교육발전에 얼마나 깊은 관심과 로고를 기울이시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하는것이다.

령도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 교육중시정치에 공화국이 사회주의강국으로 비약하는 번영의 지름길이 있다.

본사기자 리 설

◎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길에서 ◎

달라진 거리이름

주체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하는 과학자거리의 이름을 위성과학자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런데 그후 그이께서는 새 거리의 이름을 위성과학자주택지구로 다시 명명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해 10월 완공된 거리를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지구가 과학도시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위성과학자거리를 위성과학자주택지구라고 명명해주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거리의 형태를 갖추자면 종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주택지구를 더 형성하여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위성과학자거리로 부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때 가서 위성과학자거리로 다시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였다.

과학자들을 위한 일에는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기술인재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그들을 존중해주고 연구사업과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것과 함께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을 다시금 의논하시였다.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라

주체101(2012)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함께 교육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교원들의 자질과 역할문제를 화제에 담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원들이 후대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은 조국과 혁명의 미래를 가꾸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교원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참다운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여 후대교육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교원들은 후대들을 위하여 량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여야 한다고, 량심과 성실성은 교육자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1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실력이 높은 교원들이 배워주는 학생들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쟁쟁한 역군들이 배출되게 된다고 하시면서 평양교원대학의 교직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교직원들은 교육사업의 담당자, 새 세기 교육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교육사업에 불타는 애국적열정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과학자들에 대한 두터운 믿음

오늘 공화국에는 자기의 지혜와 열정으로 나라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다.

비옥한 토양에서 곡식이 충실히 여무는것처럼 부강조국건설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자욱을 남기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재능과 위훈은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원천으로 되고있다.

몇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날 과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망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과 함께 기초과학연구에 응당한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과학연구사업은 생눈길을 헤쳐나가는것이나 같다고 하시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려면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지난 1월에도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그이께서는 과학연구성과자료들과 전시품들을 보시고 우리의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비상한 두뇌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믿고 내세워주시며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8월 어느 한 과학기술전람관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새로 개발한 첨단기술기재들을 보시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종자로 잡은것이 좋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선사람들은 머리가 총명하고 비상하기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수 있다고 하시였다.

믿음과 사랑에는 보답이 따른다고 하였다.

오늘날 공화국의 청년과학자들이 세계콤퓨터장기선수권대회나 바둑프로그람선수권대회들에서 세계적인 강팀들을 누르고 련전련승하고있는 사실이나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인터네트프로그람작성도전경연들에서 우승하고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대학생학과경연들에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는 등 기초과학분야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나가고있는 성과들은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과시하는것으로 된다.

과학자들의 재능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는 행운을 지닐 때 더욱 빛이 나며 그들의 연구성과도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성남

《조선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국제사회계가 격찬

과학과 교육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으면서 강대한 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국제사회계의 이목을 모으고있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 하나만 놓고서도 보다 휘황찬란하게 변모될 조선의 앞날을 그려볼수 있다.

조선로동당의 구상은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는것이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조선의 앞날이 기대된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자말푸르지부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최근 조선이 거둔 성과들은 모두 국내과학자, 기술자들의 노력에 의한것이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의 사회주의교육테제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로씨야의 데웨—로쓰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과학연구기관들을 찾고찾으신다, 그이의 지도밑에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이 높은 속도로 실현되고있으며 모든 분야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최고령도자의 정치는 새로운 기적창조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에 활력을 부어주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인터네트신문 《비다 이 아르떼》는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국가정책으로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리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수없이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에서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고있다.

조선에서는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등 온갖 형태의 교육도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처럼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조선은 사회주의강국, 문명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민주꽁고대학생 및 학생련맹대표단 단장은 조선의 과학기술전당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어른들뿐만아니라 학생소년들도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는 이곳은 말그대로 과학의 대전당이다.

과학기술정보봉사능력과 교육조건을 원만히 갖춘 배움의 전당에서 어린이들까지 열심히 학습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느껴지는바가 크다.

조선은 머지않아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과학으로 조국을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과학기술전당에서—